

한국음악교육학회 2022 추계학술세미나 보고서 A Review of 2022 KMES Autumn Conference

양소영*

Sohyeong Yang

2022년 10월22일(토) 한국음악교육학회 주관으로 추계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이후 실로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추계학술세미나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윤성원박사님의 사회와 김미숙 학회장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날은 주제발표자 6인과 토론자 6인의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첫 발표는 ‘현대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과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최미설박사님이 해 주었다. 연구자는 현대 미학의 관점에서 음악교과교육의 의미와 가치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근거한 음악교과교육 현장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시대 적용 가능한 미학적 원리를 도출해 내며 음악교과교육에 적용 가능한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허수연박사님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주었다. 연구자는 COVID-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현황과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교수자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는 이번 연구에서 예술드림거점학교, 예술이음학교, 예술꽃씨앗학교 등 현장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새롭게 개발될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정윤정박사님이 ‘모두를 위한 통합음악수업 설계 모형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었다. 연구자는 통합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모든 학습자를 위한 통합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음악수업을 통해 사회 통합을 기대하면서 모두를 위한 학교 음악교육의 통합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형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설문 분석 결과를 추출하고 개별화 수업 설계 요소를 바탕으로 설계 모형의 기초를 마련한다.

네 번째는 양소영교수님이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국·내외 초등음악 창작 연구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었다. 연구자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20년간 초등학교 음악과 창작 영역의 국·내외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있어 단어빈도 분석, TF-IDF, 토픽 모델링, 토픽 유사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심도 있는 고차원 빅데이터 분석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음악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을 위한 범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재연교수님이 발표해 주었다. 연구자는 3년간 진행된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의 보완점으로 대학의 교수진과 현장 교사들이 전문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여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 내면의 통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미적 감성 역량 중심의 범교과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정윤박사님은 ‘즉흥연주: Mozart부터 K-pop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었다. 즉흥연주 연습 방법을 다양한 단계로 제시하고 직접 간단한 모티브를 가지고 즉흥연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보여 교사로서 즉흥연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급변하는 21세기 음악과 소통하게 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즉흥연주의 현장 적용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 아래 문화·예술교육관련, 창작, 심미적 감성 역량, 즉흥연주 등의 연구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연계될 수 있는 활발한 학술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길 바라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음악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